

민주노총이 범죄자 윤석열 체포에 나서겠다

- 양경수 위원장 “1월 3일 민주노총 전국 조합원 한남동 관저로 집결”
- 31일 11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 개최

민주노총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내란수괴 체포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탄핵광장에 나선 국민의 요구를 대변하여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고 구속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1월 3일 한남동 대통령공관의 문을 직접 열어 내란수괴 체포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의 신속하고 엄정한 집행을 촉구한다. 경호처가 체포를 막는다면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이고 위법이며 그들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스스로 관저에서 걸어 나와 수갑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그렇지 않으면 민주노총이 직접 체포에 나서겠다. 1월3일 민주노총은 전국의 조합원들을 한남동 관저로 집결시킬 것”이라며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직접 체포 투쟁에 나설 것이다. 분노한 노동자 시민이 대통령궁에서 독재자를 끌어내는 해외사례처럼 완강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핵심관계자 부역자에 대한 처벌이 시급함에도, 한덕수를 권한대행으로 세우는 등 탄핵 갈짓자 행보가 이어졌다”면서 “내란세력 차단하지 않으면 윤석열 파면 이후 세상도 그 전과 후가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세력이 여전히 활개친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노동자가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나겠다. 공공운수노조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은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적극 반대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누가 국민을 위하고 누가 국가를 위한 것인지, 누가 개

인의 권력을 위한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현실이다” 라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의무다. 윤석열을 체포 구속하는데 공무원 노조는 모든 역량을 쏟아서 함께하겠다” 고 밝혔다.

[붙임]

1.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발언문
2.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 발언문
3.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 발언문
4. 기자회견문

[붙임]1.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발언문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 7명과 가족3명도 희생되어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기적적으로 생존한 승무원들의 쾌유를 빕니다. 민주노총은 더욱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이 범죄자 윤석열 체포에 나서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계엄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법자입니다. 국회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선관위를 장악하여 민주주의를 부정하려 한 쿠데타 세력입니다. 국정혼란에 대한 반성도, 국민에 대한 사과도 없이 거짓과 위선으로 범죄를 감추기에 급급한 비양심 파렴치범입니다. 즉각적인 체포, 구속으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합니다.

지금도 너무 늦었습니다. 12월3일 이후 계엄에 가담한 자들은 국회와 국민앞에서 뻔뻔하게 거짓을 늘어놓았고, 이 시간에도 증거를 감추고 인멸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윤석열의 친위대 국무위원들은 제살길을 찾기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윤석열 구하기에 나서고있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멋대로 남용하며 윤석열 탄핵을 방해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선동에 화답한 극우세력들은 혐오와 패악질로 마지막 발악을 하는 상황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의 신속하고 엄정한 집행을 촉구합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와의 충돌을 핑계로 좌고우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호처가 체포를 막는다면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이고 위법입니다. 그들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스스로 관저에서 걸어 나와 수갑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노총이 직접 체포에 나서겠습니다. 1월3일 민주노총은 전국의 조합원들을 한남동 관저로 집결시킬 것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직접 체포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윤석열을 체포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분노한 노동자 시민이 대통령궁에서 독재자를 끌어내는 해외 사례처럼 완강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노총과 함께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하여 혼란을 바로잡읍시다. 노동권과 공공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불평등과 차별, 혐오가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민주노총이 앞장서 길을 열겠습니다.

[붙임]2.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 발언문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내란법 윤석열에 대한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에 대해 핵이 이루어지고 나서 곧바로 핵심 관계자와 부역자에 대한 처리가 함께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란의 핵심 부역장인 한덕수를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였다가 다시 탄핵하고 최상목 부총리를 권한대행으로 하는 갈지자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란 세력에게 핵심 부역자들에게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장 역할을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처단도, 그리고 내란 세력에 대한 처단도 요원해지고 국정 혼란만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윤석열 파면 이후의 세상도 그 전과 후가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이 우여곡절 끝에 발부되었지만 만시지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만 내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해 우리 노동자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 앞에 공공운수 사회 서비스 노동자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공공운수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 정권의 잘못된 정책의 맨 앞에서 가장 큰 어려움과 피해를 당해 왔습니다. 총회 인건비제, 필수 유지 업무제 등으로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등 헌법에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노동 3권을 부정 당해 왔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임제 폐지로 장시간 노동과 사고가 급증했습니다. 건강보험이 공격받고 국민의 노후 보장인 연금 계약에 직면했습니다. 철도 지하철 방공에 대한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으로 노동자의 사망과 안전의 위험이 늘어났습니다. 사회서비스원 폐지로 대량 해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운수노조가 한 발 더 앞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 수괴와 세력에 대한 빠른 처벌을 통해 UN은 공공성이 확대되고 노동권이 강화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편안한 일상을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붙임] 3.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 발언문

대다수 많은 국민들과 함께 우리 민주노총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올해 초부터 우리 국가의 경제를 고민하고 우려하면서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내란 세력의 행동을 보니 그들은 자기들만의 권력을 위해서 불법 계엄을 저질렀습니다. 누가 나라를 위하고, 누가 개인의 욕망을 위해 행동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난 현실이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때나 계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적극 반대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누가 국민을 위하고 누가 국가를 위한 것인지, 누가 개인들의 권력을 위한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은 지금 당장 체포 영장에 집행에 있어서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이에 불응하고 부화뇌동한다면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나설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번 체포 영장에 대해서 그리고 체포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노조는 모든 역량을 쏟아서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우리는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발표하던 윤석열의 광기 어린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국회를 범죄자소굴로 규정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며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선포했다.

탄핵 이후 밝혀지고 있는 사실은 윤석열이 오랜 기간 측근을 동원해 치밀하게 내란을 준비했다는 점이다. 윤석열은 정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국회를 불법으로 장악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일거에 제거하며 대북도발을 통해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획책했다. 윤석열은 극우 유튜브에 심취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믿을 수 없는 부정선거론을 신념으로 믿으며 민족전체를 전쟁의 참화에 몰아넣을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뿐이다.

윤석열은 위헌적 내란시도로 탄핵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과도 없이 정치적 혼란을 조성하며 권좌에 복귀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반대하며 내란공범으로 전락했으며 내란상 설특검법과 헌법재판관임명 등 내란수사와 탄핵절차를 방해하며 민심과는 역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다. 내란에 동조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탄핵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어렵게 성사한 대통령 탄핵과 내란수괴에 대한 수사, 처벌이 무력화될 수 있다. 극단적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에 복귀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내란수괴와 내란공범들이 탄핵과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동안 한국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 주식은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며 내수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 노동자 서민의 삶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 구속하는 것은 내란동조 세력의 준동을 막고 신속하게 탄핵절차를 이행해 향후 사회대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다.

오늘 법원은 소환에 불응하는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조만간 체포시도가 이어질 것이다. 민주노총은 공수처가 단호하게 내란수괴를 체포, 구속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윤석열이 경호처를 발동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다면, 민주공화국의 법절차를 무시하고 내란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내란수괴 윤석열의 궤변과 내란공범 국민의힘의 탄핵 방해를 지켜보고 있지 않겠다. 공수처의 내란수괴 체포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탄핵광장에 나선 국민의 요구를 대변하여 나설 것이다. 위헌적 계엄이 시도된지 한달이 되어간다.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고 구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민주노총은 1월 3일 한남동 대통령공관의 문을 직접 열어 내란수괴 체포투쟁을 벌일 것을 선언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구속하라!
내란공범 국민의힘은 탄핵방해 중단하라!
내란동조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
내란세력 청산하고 민주주의 수호하자!

2024년 12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